

소크라테스의 철학과 대화법

〈소크라테스대화법〉

1. 철학의 실천적 역할

❖ 소크라테스의 철학

- '철학'의 실천적 역할이 철학 본래의 활동임을 보여줌
- 소크라테스가 광장에서 일반인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함께 철학적 대화를 함 - 철학 본연의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음
-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생각(삶)과 일상(삶)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했음 - 삶의 방식으로써의 철학하기
- 철학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

2. 철학자, 소크라테스(B.C.470-399)

❖ 어떻게 철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?

- '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.' '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.'

- <변론>

- 깨닫지 않는/ 음미되지 않은 사람은 재난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에 서있다.

이런 삶은 피할 수 없이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

➤ 자기 삶에 대한 성찰(메타적 사고)-삶의 변화의 필요성

2. 철학자, 소크라테스(B.C.470-399)

❖ 어떻게 철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?

■ '너 자신을 알라', Know thyself

- 델포이(Delphoe)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. 고민거리를 안고 신전을 찾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아폴론의 조언
-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 됨
- '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...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' -<변론>

➤ 철학은 '자기 자신을 아는 것'으로부터 시작함

3.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-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
 - 소크라테스 대화의 근원적 형식으로서 소크라테스에 의해 수행되었고, 플라톤에 의해 기록된 대화
 -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대화 상대와 더불어 말해지고, 플라톤에 의해 문자화된 대화
 - 고대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형식은 오늘날 '소크라테스 대화' 패러다임의 특성을 잘 보여줌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■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1) 대화(dialogue, dua-logue)의 형식을 갖음

- 대화란, 나와 또 다른 존재인 상대방과의 교류, 서로 다른 입장이 접촉하여 교류하는 활동
- 주로 2인이 처음 시작을 하고,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사람이 참가함
- 서로 주장하고 반박을 하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, 참과 옳음, 보편타당한 것을 찾기 위해 문제를 검토함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-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2) 논박(elenchos)의 형식을 가짐

- 소크라테스가 대화 파트너의 주장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의 잘못된 지식을 파괴한 후(elenchos), 대화 파트너는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지식이 비로소 거짓 지식이었음을 알게 됨
- 처음에 자명했던 것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시되거나 그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됨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■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3) 두 사람의 대화가 근거하는 것은 오직 이성(logos) 뿐임

- 소크라테스의 모든 대화는 '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, 이성적인 것, 자명한 것을 따라야 한다', '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'는 것에 근거한 대화
- '이성에 따라야 한다'는 것의 의미 – 상대방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의 생각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
- 소피스트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기술(수사학)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,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기술은 어린 아이(진리)를 낳게 하는 일종의 산파술

소크라테스적 대화 방법

Socratic Dialogue



- 대화상대자는 사유의 주체
- 소크라테스는 대화상대자의 생각을 열게 만드는 산파 역할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■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4) 대화를 통해, 진리를 깨닫게 됨

- 산파술(문답법)을 통해,
- 소크라테스가 대화 상대방에게 하는 일은 생각이나 이론을 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,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
- 도움의 결과로 상대는 진리 인식에 도달함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■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5) 대화는 난문(Aporia)를 확인하고 끝남

- 고대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이상 풀 수 없는 난문(아포리아)을 확인하고 끝남
- 최종 진리는 실제 대화에서는 발견되지 않음
- 대화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생각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인식에 도달함
- '너 자신을 알라'는 자아 인식과 자아 형성의 차원에 이름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■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6)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하기

- 보통 생각에 근거한 철학의 내용과 일상의 생존 방식은 서로 일치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옴
- 소크라테스 대화는 생각과 일상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목적을 가짐
- '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'라는 질문과 대화를 통한 철학함으로 통해, 삶의 방식, 인간 존재의 가치를 음미하도록 함
- 상식, 관행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살아가는 일상의 생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'상식'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함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■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7) 소크라테스 대화는 개념의 의미를 공유함

- 철학과 일상이 서로 먼 거리를 갖게 된 이유는 이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부정확함, 즉 개념의 혼란에서 찾을 수 있음
- 어떤 개념이 문맥과 상황에 따라, 다르게 사용되면 의미가 왜곡되거나 부차적인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를 대신하게 됨
- 소크라테스 대화는 대화를 통해 상호 소통과정 속에서 개념을 설명하며 나아가 개념의 진정한 의미(정의)를 공유하고자 시도함
- 개념의 척도를 갖게 될 때,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혼동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음

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

■ 소크라테스식 대화(Socratic dialogue)의 특징

8) 소크라테스 대화는 열린 체계

- 소크라테스 대화는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함
- 대화를 통해 스스로 자기를 개방하고 함께 성찰하는 과정 중요
-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함,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 과정

4. 정의를 내리는 작업의 중요성

❖ 정의를 내리는 작업의 필요성

『에우티프론』 – 경건함이란 무엇인가?

『라케스』 – 용기란 무엇인가

『카르미데스』 - 절제나 건전한 마음의 상태란 무엇인가?

- 소크라테스는 단어의 의미, 단어의 의미 규정, 단어와 단어의 경계 짓기, 즉 정의를 강조함
- <파이돈>편 – “말을 옳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잘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, 우리의 혼들에 대해서도 나쁜 걸 심어 주고 있다는 것 잘 알아두게.”라고 크리톤을 나무람

4. 정의를 내리는 작업의 중요성

❖ 정의를 내리는 작업의 필요성

- 말을 옳게 하지 못하는 경우, 삶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들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옴
-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, 중요한 단어들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면, 심각한 사태를 낳을 것이 분명함
- 저울이 없다면, 무게를 다는 일에 관련해서, 자가 없다면, 길이를 재는 일에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처럼, 말의 혼동은 다툼을 가져올 수 있음
- ✓ 서로 다른 뜻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,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기소당한 죄목이 '불경죄'인데, '불경죄'의 의미를 서로 다른 의미로 규정하여 사용한다면, '불경죄'는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죄목이 됨

4. 정의를 내리는 작업의 중요성

❖ 정의를 내리는 작업의 필요성

- 중요한 단어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 규정이 요구됨
- 의미 규정은 윤리적 행위의 기준, 법적 판단의 기준에 영향을 미침
- 정확한 의미 규정에 따른 윤리적 행위 기준을 가진다면, 그것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
- 단어의 의미를 따라, 우리는 경건한 사람, 용감한 사람, 절제 있는 사람,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음
-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공동 탐구의 성격을 갖는 것
- 진정한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공동 탐구를 통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칙(logos) 또는 원리, 원칙에 대한 앎(episteme)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함

5. 옳음에 대한 자기 확신에 대한 위험성

- 소크라테스는 에우티프론과의 대화를 통해 '경건함'에 대한 자기 확신의 위험성을 보여줌
- '경건함'에 대해 정확한 이해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에우티프론
- '불경죄'에 대해 정확한 이해없이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고소인들
-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필요성을 소크라테스가 강조
- 얕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, 자신이 모른다는 것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함

<에우티프론> 2a – 5d

3. 소크라테스가 에우티프론에게 '경건함'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청함 4e - 5d (낭독)

- 소크라테스는 경건한 것은 그 자체로 모든 행위에 있어 동일한 것이고, 경건하지 못한 것은 모든 경건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함 5d
- 그렇다면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경건하지 못한 것인가?
- *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"그것이 무엇인가" 라는 질문의 전형적인 예
- ✓ 소크라테스는 '경건함'의 특성(idea)이 무엇인지 묻는다.
- ✓ 특성(idea)은 사물의 공통된 성질, 특성 – 사물의 본질적인 것

II. 경건함에 대한 첫번째 정의 5d - 6e

- '경건함'에 대한 에우티프론의 첫 번째 정의

: 사례 열거를 통한 의미 규정의 잘못을 범하는 에우티프론 5d - 6c

1. 에우티프론의 첫 번째 정의 - 경건한 것은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 자(아버지)를 기소하는 것이고, 기소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. 5d -5e

- 경건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바로 이것처럼, 살인이나 신성한 것을 흠침으로써 범하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자를 기소하는 것
- 정의의 증거 : 사람들은 제우스를 신들 중에 가장 올바르다고 여기고 있으며,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들을 부당하게 삼켜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결박, 거세했다는 데에 동의한다. 5e-6a

II. 경건함에 대한 첫번째 정의 5d - 6e

2. '경건함'에 대한 물음은 그것의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닌, 그것의 '특성' 자체에 대한 것임을 [소크라테스가] 환기시킴 6c -e (낭독)

- 소크라테스는 에우티프론에게 질문한 것에 더 명확하게 대답하라고 말함 6c - 6d
- 소크라테스는 에우티프론에게 경건함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않고서, 아버지를 살인죄로 기소한 자신의 행동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함 6d
-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경건한 것 가운데 한두 가지를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, 경건함의 특성(eidos, 형상) 자체를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함 6d - e
- '경건함의 특성'이란 그것에 의해 모든 '경건한 것이 경건한 것이 되게 하는 것

II. 경건함에 대한 첫번째 정의 5d - 6e

2. '경건함'에 대한 물음은 그것의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닌, 그것의 '특성' 자체에 대한 것임을 소크라테스가 환기시킴 6c -e

- 소크라테스는 에우티프론에게 경건함의 특성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본보기(paradeigma, 페러다이그마)로 삼겠다고 함
- **본보기 / 본 – 어떤 것의 판단 기준 역할**
 - ✓ 본(paradeigma)은 현대에 패러다임(paradigm)의 어원 – 전형적인 사례, 대표 사례, 범례 등의 의미를 가짐
 - ✓ 소크라테스가 요구하는 '특성(eidos)'의 의미 규정이 이루어진다면, 어떤 것을 판별하는 본이 되어 어떤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음

6. 논박의 역할

-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가진 판단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함
- 판단의 정지 작업 역할이 바로 논박(elenchos)
- 논박(elenchos) - 근본적으로 앎일 수 없는 개인적 판단이나 의견일 뿐인 것을 파기하기 위한 일종의 정화 작업, 제거 작업
-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은 이런 논박 과정이 진행되는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음
- 논박을 통해 사람들 자신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위장된 지혜였음을 드러냄

소크라테스의 논박의 구조

❖대화 중 논박의 구조

- 갑은 A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.
-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던지며 갑이 B와 C, D 등을 받아 들이게끔 한다.
- 그런데 B와 C는 A와 모순되는 것이다.
- 갑은 B와 C를 분명하게 받아들인 상태이므로, 원래 확신하던 A라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.
- 따라서 갑은 A라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.

소크라테스의 논박의 구조

❖ 대화 중 논박의 구조 <소크라테스의 변론> 26e -27e

- 멜레토스가 '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'(A)는 믿음을 갖고 있다.
-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며, 멜레토스는 '영적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도 믿는다'(B)를 받아 들이게 한다.
- 그런데 B와 C는 A와 모순되는 것이다.
- 멜레토스는 B를 분명하게 받아들인 상태이므로, 원래 확신하던 A라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.
- 따라서 멜레토스는 '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'(A)라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.

감사합니다.